

마음껏 뽐내라, 지구촌 청춘들의 땀과 열정

사진 = 특별취재단 최현배·김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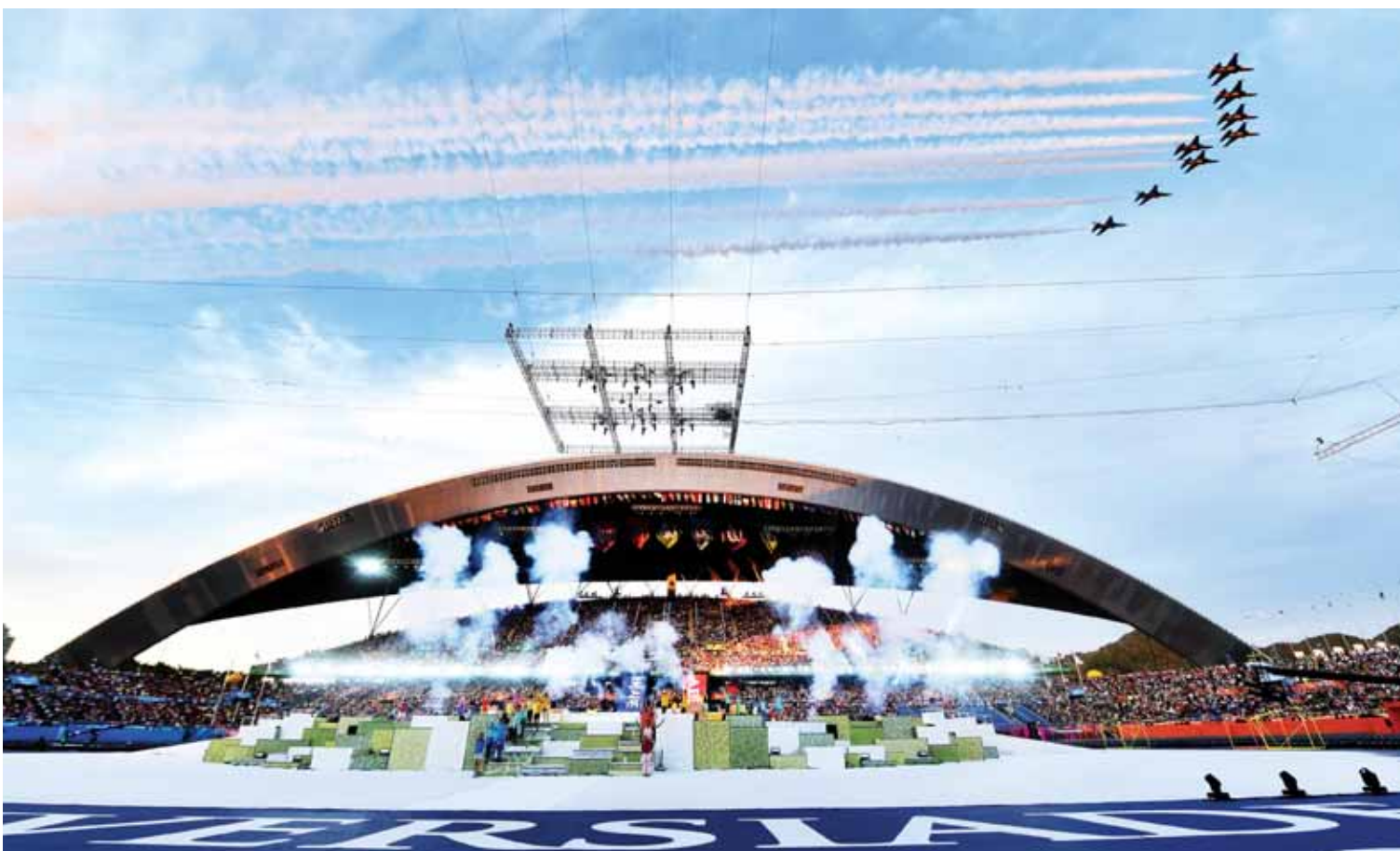
하나된 둘 지난 2일 광주시 남부대국체육영장에서 다이빙 대표팀의 문나윤(오른쪽)·고은지가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오르는 성화 3일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성화가 대회 슬로건인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를 배경으로 힘차게 타오르고 있다. 성화는 대회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젊음이 날개를 퍼다 빛고를 광주에서 온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퍼는 젊은이들을 표현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 문화행사 '젊음이 날개를 퍼다'.



블랙이글스팀 축하 비행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공군 블랙이글스팀이 축하비행을 하며 하늘을 수놓고 있다.



말춤 추는 스위스 선수들 스위스 대표팀 선수들이 3일 열린 대회 개회식에서 사이의 '말춤'을 추면서 입장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송소희 3일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서 젊은 국악인 송소희가 청년들의 힘찬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 /연합뉴스